實戰 수능교실

외국어 영역 파트별 학습 비법, 바로 이것!

듣기시험, 반드시 문제·보기부터 먼저 읽어라

2008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까지 등급, 표준점수, 석차백분위로 외국어 영역 성적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등급만 나온다. 1등급은 상위 4% 이하, 2등급 7% 이하, 3등급 11% 이하 등 수험생의 성적분포 구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만일 시험이 쉬워 만점자가 11% 이상이면 2등급이 없어진다. 2005학년도에 3과목, 2006학년도에 1과목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까지는 등급이 같아도 다른 점수가 있어 수험생의 우열을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보조 장치'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올해 수능 외국어 영역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법 대부분 동사에서 출제됨을 명심

어휘 어려운 단어는 미련없이 버려라

독해 핵심내용 우리말로 요약 연습을

▶ 듣기(말하기) 영역

1. 원어민들의 대화를 듣고 따라 하는 섀도 스피킹(Shadow speaking)으로 연음과 유음에도 익숙해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자.
2. 듣기시험은 문제에 대한 집중이 중요하다.
(듣기시험 중간에 읽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 일단 듣기가 시작되면 듣기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3. 듣기시험은 문제와 보기를 반드시 먼저 읽어 보아야 한다
4. 이어폰으로 듣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서 청취 연습을 하자.
5. 듣기 문제가 틀리는 경우는 테이프의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영어의 발음 (특히, 연음)과 리듬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 듣기 교재는 반드시 받아쓰기(DICTATION)가 있는 교재를 써라
7. 일주일에 듣기 모의고사 형태로 5회 이상 풀자.
8. 주제별·상황별로 자주 나오는 미국식 듣기 표현을 정리하자.
9. 반복해서 듣되 따라서 소리내 읽어보도록 한다.
10. 자기만의 듣기 오답 어휘집을 만들자.

▶ 어휘 영역

1. 14년간 수능 기출 단어부터 정리하라. (약 4,000개)
- 매년 1,100~1,200개의 수능 단어중 95% 이상이 수능 기출단어다 -
2. 영어의 생명은 단어(숙어) 실력이란 사실을 명심하라.
(매일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어휘를 암기하라.)
3.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는 일단 미련없이 버려라.
4. 아주 쉬운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반드시 암기하라.
(예:novel:새로운 / culture:경작하다 / cause:대의, 운동)
5.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따로 자신만의 단어장에 정리하라.
6. 문제 보기에 나온 단어 중 모르는 단어는 꼭 암기하라.
(심경/분위기/연결사/목적/주제/제목 빈출어휘)
7. 일단 동사부터 먼저 암기하라.
8. 단어는 파생어/반의어/동의어와 함께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9. 중요 어원을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해보자.
10. 개별 단어 보다는 구나 문장의 형태로 단어를 암기하자.

▶ 어법(문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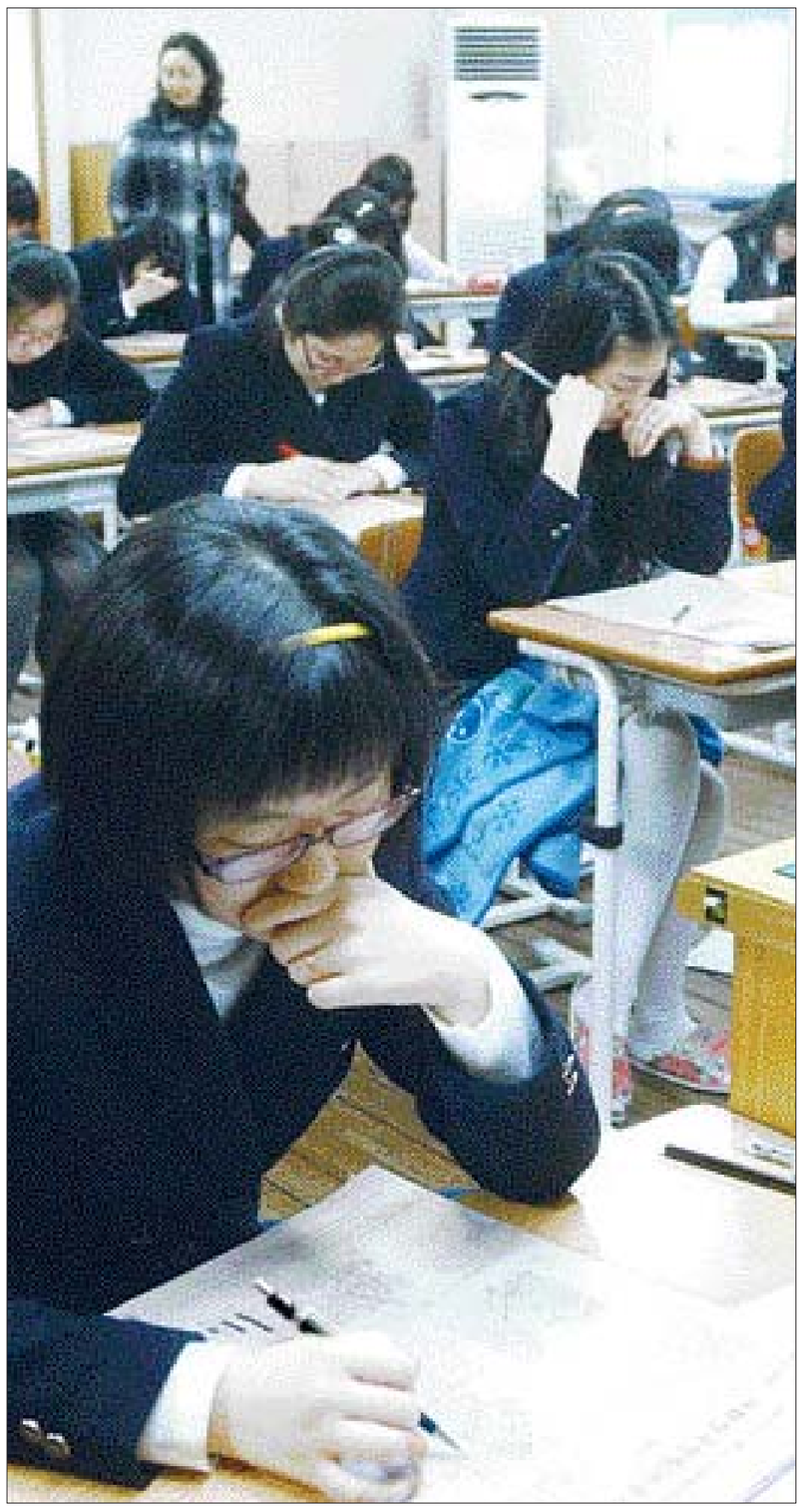
1.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본 어법책을 선정해서 3회이상 반복해 학습하라
(수능 문법 출제의 원칙은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다)
2. 14년간 수능 기출문제에 나온 중요 어법 사항을 꼼꼼히 정리한다.
(기출 어법 문제는 가장 강력한 수능 예상문제다)
3. 자신이 취약한 어법 영역을 선별해 더 학습하라.
(잘 틀리고 어려운 문법 PART를 집중 학습하라)
4. 학평(교육청) 모의고사및 EBS 교재를 풀고 나만의 어법 오답집을 만들라.
(중요 어법 개념 위주로 정리하라)
5. 단순한 문법 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문맥상 맞는 어법을 고르는 눈을 키워라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보는 눈이 약한 경우가 많다)
6. 어법문제는 대부분 동사(준동사)에서 나온다
(동사의 태/수/시제/형식/가정법/조동사/준동사)
7. 연결사(등위접속사/관계사/접속사)의 쓰임을 정확히 알자.
8. 품사(형용사/부사/대명사/전치사)의 기능과 문장 어순에 유의하자.
9. 어법문제는 항상 빈칸(밑줄) 주변의 조금 떨어진 앞뒤에 답의 힌트가 있다.
10. 단순히 암기해서 고르는 문법 정답은 함정일수 있다.

▶ 독해(읽기) 영역

1. 14년간 수능 기출문제부터 유형별로 풀어라.
2. 정독 및 속독·속해 연습을 하기 바란다.
3. 첫 문장부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4.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어 배경 지식을 틈틈이 쌓아두자
5. 글의 핵심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6. 평상시 문제당 1분 10초 이내에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7. 잘 모르는 새로운 문장구조(구문)는 틈틈이 정리 해야 한다.
8. 지나치게 단순한 리딩스킬에 의존하면 위험하다.
9. 지문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내용)을 미리 추론하면서 읽어라
10. 자신이 취약한 독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더 연습하라.

김 기 찬
〈1318논술연구소 외국어 영역 강사〉

동영상 강의
www.1318hi.com



올해 수능 외국어 영역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전남여고에서 치른 수능 모의고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